

2009.11.27.금 천국성령운동 간증 말씀(정예인 목사)

안녕하십니까? 정예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 여러분들께 왜 회개 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정 깊은 말씀을 전해주시길 것입니다.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6일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섭리사야!

너희의 수고를 아노라. 너희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니 모두 저 흑암 사탄 마귀들을 물리치고 하나 되어 나가야 한다.

너희를 믿노라. 너희 선생이 저렇게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있으니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모두 성령 받고 나와 함께 뛰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와 일체되어 뛰어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아니더냐. 신부 데리러 내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모두 어서 깨끗하게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맞아다오. 회개해야 나를 맞이할 수 있노라. 그때가 이때이다.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이때 어서 속히 회개의 제단을 쌓아라. 회개, 회개, 회개뿐이로다. 회개의 역사이니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주리라. 나의 사랑하는 섭리사가 아니더냐. 모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여라.

신부의 역사이니라.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맞기를 바란다. 사랑으로 나를 맞아야 한다. 깨끗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맞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갈 수 있노라.

그리고 주일말씀, 수요일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 내 말이니라. 말씀으로 내가 역사한다.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실천하는 자에게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남은 기간 모두 어서 뛰어야 한다.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모두 하자꾸나. 마지막으로 주는 성령 받아 모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자꾸나.

나의 섭리야.

나도 하늘아버지도 기대하고 있노라. 너희가 나의 소원 이루어다오.

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다오. 모두가 하리라 믿는다. 정말 사랑한다. 내 사랑 의심치 말고 가자꾸나. 너희의 처소를 내가 예비하리라. 나와 함께 가자. 영원한 그 나라로.

사랑한다. 회개하는 자 나의 영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다. 회개는 나와 아버지께 향하는 문이로다. 회개해야 너희의 죄가 없어진다. 회개하여 깨끗한 신부들이 되어라. 회개한 자만이 나의 유일한 신부될 자격자도다. 모두 회개하여 나와 일체되어라.

근본을 알고 회개하여라. 영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라. 내가 용서해주리라. 회개해야 개인도 민족도 세계도 내가 역사하리라.

섭리 모두가 회개의 불을 일으켜라. 너희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이니라. 죄가 생각나지 않느냐?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의 죄가 생각나리라. 회개해야 환란도 피할 수 있노라. 회개해야 너희 선생의 일도 풀어지리라.

회개가 얼마나 좋은지 너희는 아느냐? 회개한 자만이 나의 나라에 갈 수 있노라. 너희 죄를 한 오라기도 숨김없이 다 고하는 것이 회개이니라. 이성의 죄 짓고 회개한 자들은 다시는 그 같은 죄를 지으면 용서가 없도다. 섭리를 나갔다 온자들도 근본을 깨닫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여라.

사명을 남용한 자들, 생명을 실족케 한 자들도 모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 전도 못한 죄, 생명을 관리하지 못한 죄, 사랑치 못한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는 아느냐? 그러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나를 사랑치 않는 죄 또한 크고도 큰 죄이니라.

남은 기간 어서 빨리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 받으라. 회개해야 너희 영이 자유함을 얻으리라. 너희 선생의 문제도 섭리 모두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 모두 통회자복하며 하늘 아버지께 고해야 너희 선생을 보내 주리라.

교역자들 지도자들부터 모두 회개의 제단을 쌓아라. 내가 들어주리라. 이 기간 모두 회개하여 깨끗한 영혼으로 나와 만나자. 회개한 자는 진정 나를 사랑하는 자로다. 회개의 바람을 너희 섭리부터 일으켜 보아라. 내가 생명을 보내 주리라.

매일매일 회개에 성공해야 한다. 사탄이 너희 영혼을 헐문치 못하게 하여라.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 성령을 쏘아 부어주리라. 성령의 역사도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회개 먼저 하여야 한다. 그래야 내가 역사하리라. 너희 영으로 진정 고백하고 나와 일체되어라. 영의 시대이니 영적으로 행하고, 영적으로 나와 대화하자. 그 모든 것의 열쇠가 회개이니라. 회개한 자에게 내가 가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나를 만나고 싶으냐? 회개하여라. 나와 대화하고 싶으냐? 그러면 회개하여라. 회개하여 깨끗한 영만 내가 데리고 가리라. 섭리가 모두가 이같이 회개에 성공하여 나를 맞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의 죄에 대해 회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성의 죄를 지은 자들은 나를 십자가에 또 다시 매달리게 하는 자들이로다.

내 사랑을 업신여긴 죄,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한 죄, 육적인 사랑만 갈구한 죄, 내 사랑의 깊이를 알지 못

한 죄, 나의 신부들을 넘본 죄, 마음으로 간음한 죄도 모두 이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로다. 섭리 안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 죄, 자기끼리만 사랑한 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근본을 깨뜨린 죄, 아담 하와처럼 짓지 말라고 한 죄를 또 다시 저지른 죄, 자기들끼리만 좋아한 죄, 육신의 쾌락만 즐긴 죄, 내 사랑을 땅에 떨어뜨린 죄, 사탄의 주관 받은 죄, 음란한 영의 주관 받은 죄, 안 한다고 해놓고 다시 그 같은 죄를 지은 죄, 가장 큰 죄 중의 죄, 이성의 죄만큼 큰 죄가 없다고 내가 너희 선생 통해 말하였도다. 그런데 너희는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었도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뜻을 깨뜨리고 또 다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는 아느냐? 죄의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탄 주관 받아 행한 그 모든 죄를 슬피 울며 통회하며 고백하여라.

그동안 너희 선생의 간구로 내가 용서해 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용서는 없다. 그러니 이 급한 때 이성의 죄를 짓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아 있으리라. 그러니 모두 듣고 이성죄의 근성을 뿌리 채 뽑아버려라.

이성에 범죄 한 자들은 날날이 회개하고 고백해야 너희가 그 죄의 울무에서 빠져 나오리라.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한다. 한번 타락하면 다시 원상복귀가 어렵도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나의 신부로 나를 맞이하여라.

이성 타락한 자들은 내가 너희 선생의 간구로 용서하겠다고 하였으니 다시는 목숨 걸고 죄 짓지 말아야 한다. 한번은 용서하나 두 번 용서는 안 한다. 명심하고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켜야 한다. 사랑하니 용서하고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겠노라.

모두 잘 듣고 섭리사에 이성의 죄를 근절시키고 다시는 이성의 유혹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나 예수의 말이니라.

(섭리사 모두가 완전한 회개를 통해 진정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